格助詞 發達에 對한 試考

—體言의 語幹末母音 ㅇ/으 脫落을 中心으로—

李 炳 銑

Ⅰ. 序 論
1.1. 本論考의 目的
1.2. 問題의 提起
1.3. 問題의 對象과 考察의 方法
Ⅱ. 國語의 音節構成과 體言의 末母音
2.1. 本考의 結論과 語幹末母音
2.2. altai 諸語와 國語의 音節構成
2.3. 文獻語 또는 方言과 國語音節의 再構
Ⅲ. 體言의 語幹末母音 脫落과 格助詞 發達
3.1. 體言의 語幹末母音 脫落과 類推作用
3.2. 用言語幹에서의 末母音 脫落과 比較
3.3. 格助詞의 單一形 發達과 /ㅎ/ 介入
3.4. 格助詞의 倍加的 發達
Ⅳ. 結 論

Ⅰ. 序 論

1.1 本論考의 目的

國語가 알타이(Altai)語에 屬한다 함은 이제 하나의 상식처럼 된 느낌이다. 그러나 國語가 이들 알타이諸語와 同系임을 말하기에는 아직 많은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의 하나로 本論考에서 말하고자 하는 格助詞의 比較研究를 들 수 있을 것이다. 國語의 알타이諸語와의 比較는 아직 日淺할 뿐 아니라, 이에 앞서서 國語의 歷史的 研究가 아직 充分히 行해져 있지 못하므로, 兩者 即 알타이諸語와 國語와의 比較에 있어서 흔히 誤謬를 犯할 우려가 많다. 그러므로 이 兩者의 比較에 앞서서 國語가 알타이諸語와의 共同祖語에서 分派한 以後 어떠한 發達過程을 밟아 왔는가를 考究한다는 것은 매우 重要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그리 容易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歷史를 밝힐 만한 充分한 資料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多幸히도 15 C. 以後에 남은 文獻으로써 逆視的으로 이러한 考究가 어느 정도 可能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過去 이러한 研究는 대개 音韻史研究에 치우친 感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同一祖語의 分派語間에 있어서의 比較研究에는 形態의 對應關係를 밝히는 것이 더욱 重要한 일이겠다. 그러므로 國語의 格助詞發達에 對한 研究는 國語의 알타이諸語와의 比較에 있어서 매우 重要한 比重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本論考에 있어서 國語의 格助詞와 알타이諸語와의 格助詞를 직접적으로 比較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比較에 앞서서 國語의 格助詞가 分派 以後 어떠한 發達過程을 밟아왔는가 하는 一面을 考察함으로써, 알

타이諸語와의 比較에 있어서, 國語의 格助詞가 他 알타이諸語와의 對應關係에 있을 可能性을 한겹 더 두드러지게 하고자 할 뿐이다.

1.2 問題의 提起

本論考에서 考察하고자 하는 對象을 말하기 前에, 國語의 格助詞와 알타이諸語와의 格助詞間에 있어서 共通的인 類型부터 提示하고, 이 兩者間의 親族關係를 밝히는 데 있어서의 問題되는 點을 指摘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國語와 알타이諸語間의 여러 格助詞에 있어서, 共通性이 存在한다 함은 지금까지의 硏究에서 어느 정도 밝혀진 것이며, 格助詞에 따라서는, 그 硏究가 매우 進前된 것도 있다.[1] 그러나 格全般에 亘한 깊이 있는 硏究는 他日을 기다려야 할 것이니, 兩者에 있어서의 親族關係를 立證하기 爲하여서는 一般的인 蓋然性이 있는 것만으로 親族關係를 云謂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먼저 國語와 알타이諸語와의 格助詞 比較에 있어서 一般的으로 共通된 類型을 提示하고, 細部的인 比較에 앞서서 問題를 삼아야 할 點을 指摘하여, 이를 本論考에서의 考察의 對象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即 國語에서의 造格으로 "ㅇ로/으로/로"의 三形態가 있다. 그런데 이에 對應하는 것으로 蒙古語의 bar가 있으니, 이 bar는 親族語 一般에서의 目的格에서 보이는 ba形(滿洲語 -be, 퉁구스語 -wa, 日本語 -wo)과 r의 複合이라 생각되거니와, 이 r는 위에서 提示한 國語 造格의 "로"와 對應關係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으로서, 國語에서의 이 "로"는 蒙古語의 converbum final의 接尾辭 -ra, -re(ide-re 먹으러) (用言에서의 目的格 "러")와도 關聯하는 말로도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國語 向格에서 接尾辭로 "ㅇ로/으로/로"의 三形態를 들 수 있으나, 이에 對應하는 것으로 蒙古語의 -ru(ina-ru 이쪽으로), 古代 土耳其語의 -rü(äb-im-rü 내집으로)를 들 수 있다.[2] 그런데 위 두 格助詞에서 問題되는 것은, 國語에 있어서 親族語와 對應하는 格助詞 "로"를 除外한 ㅇ/으 母音에 關한 것이다. 이를 從前에 (또는 現在에도) 調聲母音으로 처리해 왔다. 그러나 이 "ㅇ/으는 다음과 같은 格助詞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即 國語에서의 絶對格(absolutive case) 또는 排除格 "ㅇ/은, ㄴ/는"에서의 "ㅇ/은"은 滿洲語에서의 主格을 強調하는 inu, anu, 蒙古語에 있어서의 三人稱 代名詞形의 主格形 inu, anu에 由來[3]한 것이거니와, 古代 土耳其語에서는 이 i, a가 主格形으로도 쓰인 것으로 보아서, 이 inu, anu는 i-nu, a-nu로 나누어 計算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nu는 國語의 "ㅇ/은"에서의 "ㄴ"과 對應하는 것이라 보아, 絶對格助詞 "ㅇ/은(또는 ㄴ/는)"에서 ("ㅇ/으"는 결코 inu, anu의 i, a와는

---

[1] 金 芳漢, 『國語主格接尾辭 "이"考』「서울大學校論文集, 人文社會科學篇, 第5輯」pp. 67—106.
李 基白, 『主格助詞 "이"에 對한 硏究』, 「어문학, 2號」pp. 94—124.

[2] 李 基文, 「國語史槪說」p. 38.

[3] 金 芳漢, 前揭論文, 前揭書 pp. 79—82, p. 93.

對應關係에 설 수 없을 것이니) 母音 "ㅇ/으"가 무엇인가가 問題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ㅇ/으"는 目的格 "ㅇ/을, ㄹ/를"에 있어서의 "ㅇ/으"와 絶對格 "ㅇ/은, ㄴ/는"에서의 "ㅇ/으"와도 同一한 形으로서, 이는 모두 앞에서 본 造格이나 向格에서의 "ㅇ/으"와 一群의 母音으로 計算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ㅇ/으" 母音은 所有格助詞 또는 處所格助詞 "ㅢ/의"에 있어서의 "ㅣ"를 除外한 "ㅇ/으"와도 한가지의 母音으로 생각되니, 이 "ㅣ"는 滿洲語에서의 所有格助詞 -i와 對應하기 때문이다(滿洲語에서의 所有格 -i를 或 女眞語 -ni에서 온 것이라 볼지 모르나 筆者는 그리 보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國語 所有格에서의 "ㅣ" 母音(公州 ㅣ江南 〈龍歌 15〉, 쇠머리:牛頭 〈月釋 1:27〉)은, 筆者의 생각으로는, 起原的으로 動詞의 派生名詞의 接尾辭 "ㅣ"와 같은 것으로 보고자 하거니와, 이 動詞의 派生名詞의 接尾辭는 國語에서 뿐 아니라 蒙古語나 퉁구스語 또는 古代 土耳其語에서도 널리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國語의 格助詞와 알타이諸語와의 比較에 앞서서 마땅히 이 "ㅇ/으" 母音이 무엇에서부터 發達해 온 것이며, 또 이 母音의 本質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問題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3 問題의 對象과 考察의 方法

위에서 本論考에서 考察할 問題點을 提起한 것이거니와, 이에 다시 이 論考에서 主로 考察하게 될 對象을 再確認하는 동시에, 問題點 解決을 爲한 方法도 아울러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即 國語에서의 1) 絶對格助詞 ㅇ/은, ㄴ/는, 2) 目的格助詞 ㅇ/을 ㄹ/를, 3) 造格 또는 向格助詞 ㅇ로/으로, 4) 所有格助詞 ㅢ/의, 5) 處所格助詞 ㅢ/의에 있어서, 共通된 "ㅇ/으" 母音은 元來 同一한 것에서 發達한 것이며, 그리고 이 母音은 國語에서의 獨自的인 發達을 하게 된 것이라 보여지는 것으로서, 이 母音이 元來 무엇에서부터 여러 格助詞에 따라 달리 發達하였는가를 本論考에서 考察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國語의 格助詞 發達은 國語文獻期 以前에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되므로, 回顧的 方法에 依하여 考察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問題點을 해결할 만한 後代의 文獻이나, 또는 方言에 있어서도 充分한 資料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論考는 어디까지나 假說의 提起에 그침을 付言하여 둔다.

Ⅱ. 國語의 音節構成과 體言의 末母音

2.1 本論考의 結論과 語幹末母音

國語의 格助詞에서 共通的인 要素인 "ㅇ/으"는 元來 무엇에서부터 發達한 것인가, 또는 이 母音의 本質이 무엇인가가 本論考의 가장 中心點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問題를 쉽게 解明하는 方法으로 이 論考의 結論부터 먼저 말하여 두고, 다음에 이 結論을 是認하기 爲한 몇가지 問題를 提起하여 나가기로 한다. 結論부터 말하면, 이 論考에서 가장 問

題의 對象이 되는 "ㅇ/으"의 母音은 元來 體言의 語幹母音이었을 것이니, 末音節에 母音을 가지는 體言의 語幹(開音節로 끝나는 體言語幹)이 그 밑에 元來의 純粹한 格助詞(絶對格助詞 "ㄴ", 目的格助詞 "ㄹ" 등)가 添加하매, 그 體言의 語幹末音節母音(이를 語幹末母音이라 略稱한다)의 脫落으로 因하여, 그 末母音 "ㅇ/으"가 純粹한 格助詞와 結合하여 "은/은(絶對格助詞), 을/을(目的格助詞)" 등 格助詞를 形成하게 된 것이라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筆者는 國語에서 體言의 末音節이 元來 "ㅇ/으" 母音을 가지는 開音節로 끝났을 것임을 大前提로 하고 나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元始國語에 있어서의 音節構成에 對하여 一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2 Altai 諸語와 國語의 音節構成

먼저 國語가 알타이語에 屬하는 以上 알타이諸語에 있어서의 이 音節構成에 對한 몇 學說부터 들어보기로 한다.

服部四郎氏는 「Tungus 語의 一派인 滿洲語에선 末音節의 子音이 消失된 結果, 開音節이 생겼을 것이요, 日本語의 鹿兒島方言과 蒙古語에서는 二音節의 母音이 消失된 結果 閉音節이 생겼다. 알타이諸語와 朝鮮語에 있어서도 過去에 같은 音韻變化가 일어났을 蓋然性이 있다.」고 하였으며,[4] 金 亨奎敎授도 「原語에서는 語末에 母音이 있었던 것이 後에 그 母音이 弱化脫落되었다고 보는 것이 正當치 않을가 생각된다.」고 하였다.[5] 筆者는 이에 同調하는 것으로서, 國語도 他 알타이諸語와 같이 CVCV의 語素(morpheme)를 가지던 것이 末音節母音의 脫落으로 因하여 CVC로 變化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를 證明하는 것으로서, 國語와 日本語와의 사이에서 對應關係가 있어 보이는 다음의 例[6]들은 興味를 돋구는 것이다.

日本語 Pata(火田) Nata(鉈) Kasa(笠) Kuma(熊) Kura(洞) Kupa-si(美)
朝鮮語 Pat(田) Nat(鎌) Kas(帽) Kom(態) Kor(洞) Kop(美)
Siba(柴) Sima(島) Seba-si(俠)
Söp(薪) Syöm(島) Chop(俠)

그리고 國語와 滿洲語 등에서 서로 對應하는 語彙를 G.J. Ramstedt 博士의 *Studies in Korean Etymology* 등에서 골라 다음에 몇 개 例示하여 본다.

굴(墎) : ma. xula(chimney), go. kolan(id), olča. kula, kola(id) [*S.K.E* p. 129]
쏠(女息) : olča. fatali, go. patala [*S.K.E* p. 252]
씨(種子) : ma. fisihe [*S.K.E* p. 231]

---

[4] 服部四郎, 「日本語の系統」 p. 13.
[5] 金 亨奎, 「國語史硏究」 p. 83.
[6] 服部四郎, 前揭書 p. 45, S.Kanazawa, *The Common Origin of the Japanese and Korean Languages*

굿(巫事) : ma. xutu. tung. kutu [*S.K.E* p. 231]

길(道路) : ma. girin [*S.K.E* p. 132]

말(馬) : ma. go. morin, tung. morin [*S.K.E* p. 138]

뿌(蓬) : ma. ruku.

벌(平原) : ma. fila, tung. hilę-kęn, olča. go. pile, pili

골(谷) : ma. holo, golo

솜(狸) : ma. solohi(쪽제비), mo. solongra

실(絲) : ma. siren, tung. siran

날(日) : mo. naran(해)

곧(處) : ma. hoton, mo. gota, gotan(城, 市)

2.3 文獻語 또는 方言과 國語音節의 再構

다음에는 15C. 國語에서 아직 體言의 末音節이 開音節로 남아 있는 몇 語彙를 들어 보기로 한다.

드르(野)

드르헤 龍이 싸호아(龍歌 69).

드르히 크고(杜解 8 : 28).

너븐 드릇中에(圓覺下三之一99).

드르교 : 郊(訓蒙上 : 4).

거우루(鏡)

물ᄀᆞᆫ 거우루 ᄀᆞᆫᄒᆞ야(月釋 1 : 34).

잇비 거우루를 ᄃᆞ랫ᄂᆞᆫᄃᆞ(杜解 20 : 34).

물ᄀᆞᆫ 거우루에 머므러실 나그내오(杜解 23 : 41).

벼로(崖)

빙애 或云 벼로(地灘)(譯語 上 7).

벼로길(柳氏物名考, 五水).

터리(毛)

톱과 터리를 바다(千江曲 174).

ᄒᆞᆫ 터리를 몯무으리니(釋譜 6 : 27).

두 터리의 侵犯호물(杜解 23 : 8).

15C. 國語等의 用言에서, 그 語幹이 아직 開音節로 남아 있는 例는

너므다(〉넘다) 시므다(〉심다 : 植) 니브다(〉닙다 : 服) 시브다(〉싶다 : 欲) 우르다(울다 : 叫, 咆) 冷 : 尺卜大(ᄎᆞ브다)(〉찹다) 熱 : 得卜大(더브다)(〉덥다)

等 많이 찾을 수 있다.[7] 그러나 體言에서는 그 以前에 거의 脫落되었다고 생각되니, 이는 用言의 語幹(stem)까지의 意味素(Sémantème)가 依存語素임에 比하여 體言의 語幹이 獨立된 自立語素이므로 用言에서 보다 진작 脫落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方言에서는 아직 體言의 語幹에서도 그 末母音을 維持하고 있는 많은 語例를 찾아 볼 수 있다.

(a) ㄱ音에서의 末母音 維持

닭(鷄) : 달그(咸南), 북(梭) : 부끄, 부꾸(咸南), 떡(餠) : 시더구(平北), 칡 : 츨기(咸南), 삵(狸) : 살기(平北).

(b) ㄹ音에서의 末母音 維持

달(닭) : 다루(咸南), 들(野) : 두루(咸境道), 들(野) : 드르, 늘 : 내내르(平北), 응달(陰地) : 능다러(平北), 노을 : 노부리(咸南北), 말(馬) : 마리(咸北), 왕벌(王蜂의 뜻) : 왕버리(平北), 허울 : 헝우리(咸南)

(c) ㅁ音에서의 末母音 維持

침(唾) : 추미(咸北)

(d) ㅂ音에서의 末母音 維持

매듭(節) : 매드비(咸南)

(e) ㅌ音에서의 末母音 維持

돝(豚) : 도투(咸北), 옷(衣) : 오티(江原, 黃海), 숯(炭) : 수투(咸北), 깃(羽) : 지티(咸南)

위에서 든 語例는 모두 標準語와 現行方言과의 比較에서 본 바로 아직 北部方言(主로 咸境道 方言)에서는 語幹末音節이 開母音으로 끝나는 語形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咸鏡道方言에 "그 사라므느(그사람은)"등 開音節語가 많이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리고 方言과 方言과의 比較에서도 어느 한쪽이 開音節로 된 것은 옛날 語形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우선 그 몇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그루(株)—끌(例 끌밭 간다)(慶南) : 그르(濟州),

밥주걱—밥죽(全南, 慶北, 江原) : 밥주구(濟州),

따비—탑(咸北) : 따비(全域),

입술—입슭(平北) : 입술기(咸北),

칼도마(俎)—칼토막(黃海) : 칼도매기(平北),

며느리(子婦)—메눌(慶北, 咸南) : 메느리(慶南),

위에서 본 例에서 "츨기 : 칡, 노부리 : 노을, 추미 : 침, 매드비 : 매듭, 지티 : 깃"에서와 같은, 名詞形接尾辭 "이"가 添加하여 된 形과 안된 形이,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것은 多少

[7] 李 炳銑, 『用言活用에서의 末音母音 脫落現象考』, 「국어국문학 28號」 pp. 67—80.

問題되기는 하겠으나, 現行語 "털(毛)"의 古形이 "터리(거부븨 터리와 돗기쓸 ᄀᆞᆫ거니 楞嚴 1:74)"였음을 보아 "츨기>츩(칡), 노부리>노을, 추미>춤(침), 매드비>매듭, 지티>짓"과 같이 變化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츨기, 노부리, 추미, 매드비, 지티"에서의 末音節인 "-기, -리, -미, -비, -티"도 元來의 語幹母音은 脫落되었다고 생각되니, 그 元來의 母音이란 可變的 要素이기는 하나, 그 앞 音節에 오는 母音에 따라, 即 母音調和에 따라서 "ㅇ/으" 母音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을, 다음 節에 가서 論述하게 될 "ㅇ/으"와 相關하는 것이기에, 우선 여기서 指摘하여 둔다. 왜냐하면 15 C. 以後의 文獻에서나 現行方言에서 名詞形接尾辭가 붙어 된 體言의 語形에 아직 "ㅇ" 또는 "으"母音을 維持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現行語에서 이미 "ㅇ/으"가 脫落되기 以前의 "-기/-긔, -리/-릐, -미/-믜, -비/-븨, -티/-틔" 形을 例示하여 보기로 한다.

a) -기/-긔

죠긔 : 石魚(方藥 49)

슬긔 慧(敬信 28)

아히 뼈브터 深山애시셔(釋譜11:28)

그리고 用言에서도 "어긔다(類合下 19), 딕킈다(龜鑑上 3)"와 같은 形이 있음을 보아, 現行語 "어기다, 지키다"는 "으"母音이 脫落하여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b) -리/-릐

音은 소리니(月釋 1:33)

죠리조 : 笊(訓蒙中 13)

그릐 : 鞦韆(譯解下 24), 그리 : 鞦韆(同文解下 33)

c) -미/-믜

王의 말미 엳ᄌᆞᆸ고(釋譜 6:15)

말미유 : 由(類合下 11)

거믜줄이 얼것고(杜解 21:4)

기믜지 : 痣(訓蒙中 34)

用言에서도 "믜어디라(가ᄉᆞᆷ이 믜어디는ᄃᆞᆺ(癸丑 p. 73), 스믜다(스믜여 붉다 : 透亮〈譯補 56〉) 같은 形이 있음을 보아, 現行語에서는 "으"母音이 脫落되었음을 알 수 있다.

d) -비/-븨

ᄂᆞᄂᆞᆫ 나비로 ᄒᆞ여(杜解 2:60)

한士ㅣ다 션비오(杜解 16:2)

아븨 ᄆᆞᆺ형 : 伯父(老解下 30)

ᄆᆞᆯ근 ᄀᆞᆺ져븨 삿기ᄂᆞᆫ(杜解 10:34)

그리고 濟州島方言에서 "ᄀᆞᆯᄀᆞᆯ아븨(蛙)"의 "아븨"는 "장구아비(水蟲), 해오라비(白鷗)"에서의 "아비"와 같은 接尾辭가 添加된 語形이니, 後者에서 "-아비"는 前者에서의 "-아븨"에서 "으"母音이 脫落(아븨>아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現行語 "넓이, 굽이, 깊이, 높이"도 用言에 있어서의 語幹에 名詞形接尾辭가 添加하여 된 "널븨(廣), 구ᄇᆡ(曲), 기ᄑᆡ(深), 노ᄑᆡ(高)"에서, 語幹末母音 "ㅇ/으"가 脫落하여 된 語形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e) -ᄐᆡ/-ᄐᆡ

ᄇᆞ람에 ᄐᆡᆺ글니다(漢淸文鑑 1 : 17)

臺우히셨ᄂᆞᆫ ᄂᆞᄐᆡ ᄆᆞᆺ히나 ᄌᆞ란ᄂᆞᆫ고(古時調 鄭撤)

江原道, 黃海道方言에서의 "오ᄐᆡ(衣)"는 아직 "으"母音이 脫落前의 形일 것이며, 咸鏡道方言의 "지티"는 "지ᄐᆡ>지티"와 같이, 이미 "으"母音이 脫落된 形이라 보여진다.

그리고 "시더구(ᄭᅧ, ᄯᅧ), 부꾸(북), 거우루(鏡), 두루(野)" 또는 "도투(돝), 수투(炭)"의 末母音도 元來는 "날그(津), 달그(雞), 드르(野), 내내르(늘)"에서와 같이 中聲母音 "으(또는 ㅇ)"가 아니었던가 싶다. 二音節 以下에서의 이 母音은 可變的인 것[8] 이어서 대개 "우"母音으로 變한 것이라 보여진다. 即 體言의 語幹도 用言의 語幹에서와 한가지로 古代(15C. 以前)의 어느 時期에 있어서는 "ㅇ/으"가 아니었던가 싶다. 15C. 以前의 文獻의 不足 또는 文字表記의 不充分으로 考證하기는 어려우나

신(履):신다, 갈(칼):갈다, 믈(水):므르다, 블(火):블다(吹), 플(草) : 프르다(靑)

에서와 같이 原始國語에서 體言과 用言이 다 같은 語幹이 아니었던가 생각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를 믿게 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語幹에 다 같은 接尾辭가 붙을 수가 있고, 또 그 同一한 接尾辭 아래에 體言에서는 名詞形接尾辭 "ㅣ"(또는 零)가 添加하고, 用言에서는 叙述形語尾 "다"가 添加하는 것으로 보아 그리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브-系 接尾辭의 一例를 들어본다.[9]

ᄀᆞᆯᄀᆞᆯ아븨(蛙), 장구아비, 족졉이—압/업+ㅣ
미깝(미끼), 브섭, 무렵—압/업+○(零) } 體言

보드랍다, 녀탑다(淺), 두렵다, 시끄럽다—압/업+다} 用言

그리고 語幹末母音이 何必 中舌母音 "ㅇ/으"이었을 理由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도 問題된다. 이는 아마 末音節의 子音이 外破(explosive)(또는 摩擦, 破擦)하였을 때에 glide로서 난 까닭일 것임만을 여기서 우선 指摘하여 두고 다음 機會로 미루기로 한다. 以上에서 國語方言에서는 아직 語幹末音節에서 母音을 維持하고 있는 語形이 많이 있음을 보았으며,

---

[8] 李 崇寧, 「國語造語論攷」 p. 249.

[9] 李 炳銑, 『-브-系 接尾辭攷』 中 『體言과 用言의 造語形式上의 比較』項 參照, 「蓮圃異河潤先生華甲紀念論文集」 p. 345 以後.

이 중 "이"母音으로 끝나는 語形은 그 앞에서의 "ㅇ/으" 第一次的 語幹母音이 脫落한 것이며, "우, 어"母音으로 끝나는 것도 元來 語幹母音이 "ㅇ/으"였을 것임을 指摘하였다. 그리하여 國語의 體言의 語幹은(또는 用言의 語幹도) 元來 "ㅇ/으" 中舌母音을 가지는 開音節이었던 것이 그 末母音의 脫落으로 因하여 閉音節化하였을 것임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國語의 音節構成은 原始國語의 開音節에서 閉音節로 기울어져 가는 경향이 있으니, 이는 위에서 例示한 바와 같은 母音의 脫落과, 그리고 子音의 添加[10]의 두가지의 理由가 있음을 말하여 두고 다음 節로 넘어가기로 한다.

1. 語幹末母音(또는 語中母音)의 脫落으로 因한 것.
   CVCV>CVC (드르>들(野) 벼ㄹ>별(崖) 니브다>닙다(衣))
2. 語中에서의 子音添加(또는 介入)로 因한 것.
   CVCV>CVCCV (가치>간치(鵲) 바구>방구(岩) 부비다>붐비다)

Ⅲ. 體言의 末母音 脫落과 格助詞 發達

3.1 體言語幹의 末母音 脫落과 類推作用

앞에서 國語는 元來 開音節語로서, 體言의 語幹도 開音節인 "ㅇ/으"母音으로 끝났을 것임을 알타이諸語와의 比較, 또는 15C. 文獻語, 또는 方言에서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 "ㅇ/으" 語幹이 純粹한 格助詞 "ㄴ, ㄹ" 等과 더불어 "ㅇ/은, ㅇ/을" 等과 같은 格助詞로 發達하였을 것이라고 前提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ㅇ/은, ㅇ/을" 等의 格助詞가 어떠한 過程을 겪어서 發達하였는가가 問題되니, 이러한 格助詞는 다음과 같은 過程을 밟아서 發達하였다고 假說을 提起하는 바이다. 이에 그 語例로서 名詞 "섭(薪)"을 取한다. 이 "섭"은 15C. 國語에서는 그 語幹末母音이 脫落된 形이다.

섭爲薪(訓正解例, 用字)

섭신 : 薪(訓蒙下 4)

그런데 이 "섭"(現行語 섶)은 原始國語에서는 "서브"였음을 再構할 수 있으니, 이는 아직 方言에 末母音을 維持하고 있다.

서부젱이—濟州方言

뿐만 아니라 隣近語에서 대개 末母音을 가지고 있음을 보아서 그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日語에서의 Siba(柴)(前出)와 對應할 뿐만 아니라, 滿蒙等 알타이諸語에서도 거의 開音節語이다.[11]

Turk. sipür-, Kir. süpür-, Kar. sipir- 'to sweep', sipürgü, čag, sipürtki, Kir. süpürtki,

---

[10] 이에 對하여는 李 炳銑 : 『語中에서의 鼻音發達에 對하여(其二)』 中 『鼻音發達의 形式』項 參照, 「국어국문학」, 34·35(合併)號, pp. 77—88

[11] G.J. Ramstedt, *Studies in Korean Etymology* p. 229.

čuv. šəßər 'a broom'

그리고 앞에서, 原始國語에 있어서의 音節構成問題에서도 考察한 바와 같이 이 "섭"의 古形이 "서브"였을 것임은 可히 疑心할 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서브"에서 末音節母音의 脫落과 함께 各格助詞가 어떻게 發達하게 되었는가를 다음에 살펴 보기로 한다. 이에 體言 "서브"에 純粹한 格助詞가 添加하여야 된 曲用形을 다음과 같이 再構하여 볼 수 있다.

(A) 서브—도……補助格助詞添加
서브—과……共同格助詞添加

(B) 서브—ㄴ……絶對格助詞添加
서브—ㄹ……目的格助詞添加
서브—로……造格助詞添加

(C) 서브—ㅣ……所有格助詞添加
서브—ㅣ……處所格助詞添加
서브—ㅣ……主格助詞添加

이때 添加된 格助詞의 音韻上의 環境으로 보아서 (A)에서는 無聲子音을 語頭로 하는 格助詞가 添加한데 比하여, (B)에 있어서는 有聲子音, (C)에 있어서는 母音(有聲音)의 格助詞가 添加한 것이다. 그리하여 (A)의 경우에는 15 C. 以後의 文獻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브"의 末母音이 脫落하여 "서브도>섭도 서브과>섭과"와 같이 變形함에 反하여, (B)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서븐, 서블, 서브로"와 같이, 末母音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C)의 경우는, 所有 및 處所格에서는 "서븨"로 末母音을 유지하고 있으나, 主格에서는 "서븨>서비"로 脫落하였다고 본다. 그런데 이 "서브"가 "섭"으로, 末母音이 脫落하게 된 音聲環境의 條件과 그 理由에 對하여서는, 이미 筆者가 用言活用에서의 "니브-다(服)닙다"에서 指摘한 바 있거니와[12] 開音節로 끝나는 語幹에 破裂音(또는 破擦音)으로 시작되는 接尾辭(格助詞 또는 語尾등)가 添加할 경우에 脫落하게 되니, 이는 音節이 하나 縮約함으로써 發音努力의 經濟가 되기 때문이다. 이 脫落過程을 音聲學的으로 觀察하면 "서브-도[səbi-do]"에의 第二音節인 有聲破裂의 外破音 "브[bi]"의 母音의 弱化로, 無聲破裂의 外破音이 되고, 이것이 다시 入破音(inplosive)으로 끝나게 된 것이다. 이는 發言에 있어서의 말의 速度와도 關係되었을 것이니, 古代에 말이 느리었을 때는 二音節이 充分히 外破(母音同伴)할 수 있었던 것이 後代에 내려옴으로부터 말의 速度가 빨라짐에 따라서 調音時에 氣息의 放出이 弱해진 關係로 充分히 外破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그 母音을 잃게 된 것(母音이 脫落한 것)이라 보여진다. 그런데 "서븐-ㄴ[səbi-n]"과 같이 有聲音이 添加할 때에는 다음에 添加하는 有聲音으로 말미암아 "브[bi]"가 無聲

[12] 李 炳銑, 『用言活用에서의 末音母音의 脫落現象考』 前揭書 pp. 74—78參照

破裂 또는 內破할 수 없는 것이다. 萬一에 內破하여 母音을 잃게 된다면, 內破된 "ㅂ[p]"와 다음에 添加하는 "ㄴ[n]"과 連接하게 되니, 이는 國語의 子音連結이 許容되지 않는 것이다.[13] 萬一 구태어 連接시키게 되면 앞 音節의 無聲子音이 有聲音으로 接變하는 것이니, 그리 되어서는 元來의 語槪念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C)의 主格의 경우, "서브-ㅣ>서비(섭-이)"와 같이 "ㅣ"의 添加로 母音衝突(hiatus)을 일으키어 一音節로 줄어서 複母音으로 되고, 다시 "으"母音의 脫落으로 單母音化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서브"의 末母이 脫落한 경우에 있어서 言衆들은(또 15 C. 以後의 表記者까지도) 어떠한 錯覺을 일으키게 되었으니, 即 "서브"에서 末母音이 脫落된 "섭"을 語幹으로 잡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當時의 言衆들은 前世代의 "서브"形을 意識할 수 없는 일이므로 (B), (C)에서의 脫落되지 않은 形에서도 "섭"까지를 語幹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남은 部分 即 "서븐, 서블, 서브로, 서븨"에서 "섭은, 섭을, 섭으로, 섭의"의 "은, 을, 으로, 의"를 모두 格助詞로 보게 된 것일 것이다. 이는 語幹意識에 依한 것이라 하겠거니와, 이 語幹意識이란 바꾸어 말하면 類推(analogy)的 心理와 通하는 것이다. 即

(A) 서브-도>섭도

(B) 서브-ㄴ>서븐(섭은)

(C) 서브-ㅣ>서븨(섭의)

에서 (A)에서의 末音이 脫落한 "섭"을 語幹으로 생각하고, 이를 基準으로 하여 (B), (C)에서도 "섭"을 語幹으로 잡아서 나머지의 "은" "의"를 格助詞로 보는 것은, 마치

(A) 고우며, 고우니, 고운

(B) 고웁고, 고웁다

에서, (A)의 "고우"를 基準으로 하여 ("고우"에 步調를 맞추어) (B)에서도 "고브"가 變異한 "고우(고브>고ᄇᆞ>고우)"에 다시 "ㅂ다"를 添加한 것과 다를 바 없다. 即 前者에 있어서는 "섭"을 基準으로 하여 "서븐, 서븨"를 "섭-은, 섭-의"로 본 것이요, 後者에 있어서는 "고우"를 基準으로 하여 "고우-ㅂ고, 고우-ㅂ다"로 본 것이니, 이는 結局 言衆들의 誤認에 因한 것이기는 하나, 言語記號의 外形的 統一을 이루어 記憶力을 便하게 하려는 努力輕減의 心理에서 온 것이다.[14]

以上, "섭"의 例에서 그의 末母音의 脫落과 그의 類推的 心理에 依하여 末母音 "ㅇ/으"까지를 格助詞로 認定하게 된 過程을 說明하였거니와, 이를 다시 아래와 같이 整理하여 본다.

서브-도>섭도……補助格助詞 添加에서 末母音 脫落

서브-과>섭과……共同格助詞 添加에서 末母音 脫落

---

13 許 雄, 「國語音韻學」 p. 224 參照.

14 李 崇寧, 『類推作用』 參照, 「中世國語文法」 pp. 70—72.
許 雄, 『類推』 參照, 「國語音韻學」 pp. 551—521.

서브-ㄴ>서븐(섭-은)……絶對格助詞 添加에서 末母音 維持

서브-ㄹ>서블(섭-을)……目的格助詞 添加에서 末母音 維持

서브-로>서브로(섭-으로)……造格助詞 添加에서 末母音 維持

서브-ㅣ>서븨(섭-의)……所有格助詞 添加에서 末母音 維持

서브-ㅣ>서븨(섭-의)……處格助詞 添加에서 末母音 維持

서브-ㅣ>서비(섭-이)……主格助詞 添加에서 末母音 脫落

위에서 "으"末母音을 가졌던 "섭"의 一例를 보았거니와, "ㅇ/으"末母音을 가졌을 다른 모든 體言에서도 이와 같은 過程을 밟아서 格助詞가 發達하였다고 생각한다.

3.2 用言語幹에서의 末母音 脫落과 比較

위에서는 體言의 曲用에 있어서 體言의 語幹에 元來의 純粹한 格助詞가 添加하여 그 母音과 더불어 發達한 格助詞를 그의 發達過程에서 살펴 보았거니와, 이에 用言의 活用에 있어서 用言의 語幹에 語尾가 添加하는 경우와를 比較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그러면 用言活用에서 例示할 語例를 다음에 들고자 한다. 即 現行語 "입다(服)"는 15 C. 또는 그 以後에 있어서도 그의 語幹에 添加하는 語尾에 따라서 ——無聲音을 頭音으로 하는 語尾가 添加할지라도—— 語幹을 아직 維持하고 있는 形이 보인다.

官人이 주교ᄆᆞᆯ 니ᄇᆞ더(觀音解 38)

계모 거상을 니ᄇᆞ되(東國新續三綱圖 3 : 86 齡老執喪)

그러나 "더/되" 以外의 語尾가 添加할 경우는 대개 脫落한 形態로 나타난다.

ᄡᅧ 무든 옷 닙고(釋譜 6 : 27)

옷 닙고 밥 머그며(全三 2 : 11)

月盖 ᄀᆞᄅᆞ치샤 ᄆᆞᆯ 닙ᄉᆞ바(楞 1 : 4)

오ᄉᆞᆯ 닙드라(老下 46)

이는, 다 같은 15 C. 또는 그 以後에 있어서도, 一般的으로 많이 活用하는 語尾의 添加에 있어서는 그 末母音이 脫落하는데 比하여, "더/되"와 같은 語尾가 添加할 때는 그 末母音을 아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본다. 이 때 後者(-고, -ᄉᆞᆯ, -드라와 같은 語尾添加)의 경우와, 前者(-더/-되와 같은 語尾添加)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그 末母音 脫落의 過程을 比較하여 볼 수 있다.

15 C. 以前 15~17 C. 現代

(A) 니브고> 닙고> 입고

(B) 니브되>니브되>입되

그리하여 "입다"의 古形을 "니브다"로 보고 다음과 같은 語尾活用의 再構가 可能할 것이다.

(A) 니브-다……叙述形 語尾添加, 니브-고……羅列形 語尾添加

(B) 니브-ㄴ……冠形詞形 語尾添加, 니브-ㄹ……冠形詞形 語尾添加,
니브-며……羅列形 語尾添加

(C) 니브-ㅣ……名詞形 語尾添加

(C)의 경우는 文獻에서 좀처럼 그 語例를 찾아 보기 어려울지 모르나, 用言의 語幹에 名詞形語尾 "ㅣ"가 添加하는 他例 即 動詞에서

우숨우ᆞ시(月釋 1 : 43) 놀이 ᄒᆞ거든(老下 48)

또는 形容詞에서

기피를 모ᄅᆞ씨(月釋 2 : 19)

半길 노핀ᄃᆞᆯ(龍歌 48)

와 같은 語例가 있음을 보아서 "니븨"의 再構도 可能할 것이다.

다음에는 이 再構한 語尾活用과 現行語에서의 語尾活用과를 比較해 보기로 하니, 이는 마치 앞 體言의 曲用에서와 같이, 그 末母音이 脫落 또는 유지하고 있는 것과 한가지이다. 即 (A)의 경우는 語幹末母音에 無聲破裂音을 頭音으로 하는 語尾 "-다, -고"가 添加하므로 그 末母音이 脫落한데 比하여, (B)의 경우는 語幹末母音 뒤에 有聲子音의 語尾가 添加하므로 그 末母音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C)의 경우는 "기피>기피(깊이)"와 같이 "니븨>니비(닙이, 입이)"로 그 末母音 脫落의 可能性을 생각하여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A)에서의 "닙(<니브)"을 基準으로 하여 (B), (C)에서도 그의 語幹意識과 類推的 心理에 依하여, "니븐, 니블, 니브며"에서의 "ㅂ"을 위 音節의 終聲으로 表記하여 (A)의 경우와 같은 形態 "닙"으로 表記하여——"닙-은(입-은), "닙-을(입-을), 닙-으며(입-으며)"에서의 "-은, -을, -으며"를 語尾로 認定하게 되고, 特히 "ㄴ, ㄹ, 며"와 結合하게 된 "으"音을 所謂 調聲母音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이에 위에서 말한 "니브>닙"의 末母音의 脫落과, 이로 因한 言衆들의 語幹 또는 語尾의 새로운 槪念形成, 그리고 그 表記形式들을 다음에 整理하여 보기로 한다(여기서 頭音의 ㄴ脫落은 考慮하지 않는다).

니브-다>닙다……叙述形 語尾 添加에서 末母音 脫落

니브-고>닙고……羅列形 語尾 添加에서 末母音 脫落

니브-ㄴ>니븐(닙-은) ……冠形詞形 語尾 添加에서 末母音 維持

니브-ㄹ>니블(닙-을)……冠形詞形 語尾添加에서 末母音 維持

니브-며>니브며(닙-으며) ……羅列形 語尾 添加에서 末母音 維持

니브-ㅣ>니븨>니비(닙-이) ……名詞形 語尾 添加에서 末母音 脫落

다음에는 用言 活用에서의 語幹 末母音 脫落과 維持關係를, 體言曲用에서의 語幹 末母音脫落과 維持關係를 아래에 對比하여 보기로 한다.

體言의 曲用		用言의 活用	
①서브-도>섭도	〈補助格助詞添加〉:	니브-다>닙다	〈叙述形語尾添加〉
②서브-과>섭과	〈共同格助詞添加〉:	니브-고>닙고	〈羅列形語尾添加〉
③서브-ㄴ>서븐(섭-은)	〈絶對格助詞添加〉:	니브-ㄴ>니븐(닙-은)	〈冠形詞形語尾添加〉
④서브-ㄹ>서블(섭-을)	〈目的格助詞添加〉:	니브-ㄹ>니블(닙-을)	〈冠形詞形語尾添加〉
⑤서브-로>서브로(섭-으로)	〈造格助詞添加〉 :	니브-며>니브며(닙으-며)	〈羅列形語尾添加〉
⑥서브-ㅣ>서브ㅣ(섭-의)	〈所有格助詞添加〉:		
⑦서브-ㅣ>서비(섭-이)	〈主格助詞添加〉 :	니브-ㅣ>니비(닙-이)	〈名詞形語尾添加〉

音聲環境과 末母音 脫落・維持

①/ㄷ/앞에서 末母音 脫落
②/ㄱ/앞에서 末母音 脫落
③/ㄴ/앞에서 末母音 維持
④/ㄹ/앞에서 末母音 維持
⑤/ㄹ/, /ㅁ/앞에서 末母音 維持
⑥/ㅣ/앞에서 末母音 維持
⑦/ㅣ/앞에서 末母音 脫落

以上의 比較에서 다음의 두가지를 지적하여 둔다.

1. 體言의 曲用에서 그 末母音이 脫落한 "섭(〈서브)"을 基準으로 하여(이를 語幹으로 알고), "서븐, 서블, 서브로"에서 (이 基準에 따라서), "섭-은, 섭-을, 섭-으로"와 같이 "은, 을, 으로"를 格助詞로 보는 것은, 用言活用에서 末母音이 脫落한 "닙(〈니브)"을 基準으로 하여(이를 語幹으로 알고) "니븐, 니블, 니브며"에서도 (이 基準에 따라서) "닙-은, 닙-을, 닙-으며"와 같이 "은, 을, 으며"를 語尾로 보는 것과 한가지이니, 이는 모두 語幹 末母音이 脫落한 "섭, 닙"을 語幹으로 誤認한데서 온 類推的 心理에서 온 것이다.

2. 그리고 格助詞 "은, 을, 으로, 의"(또는 後述하게 될 "는, 를")에서의 "으"母音은 모두 語幹末母音으로서 모두 同質的인 것이다. 그런데 從前에 用言活用語尾에서의 "으"母音(또는 體言에서의 造格助詞에서의 "으"母音)을 調聲母音이라 하고, 體言 曲用의 格助詞에서의 "은, 을, 의"(또는 "는, 를")에서의 "으"는 그러한 考慮도 없이 그저 格助詞로 認定받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 "으"母音과 調聲母音과는 어떠한 關係에 있는가는 再考할 餘地가 있는 것이다. 앞(2.3)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語幹 末母音이 glide的으로 나는 母音일것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를 調聲母音이라고 하는 問題는 다음 機會로 미루고, 여기서는 다만 格助詞에서나 語尾에서의 "으"母音은 모두 同質的인 末母音임을 지적하여 둔다.

3.3 格助詞의 單一形 發達과 /ㅎ/介入

위에서 格助詞 "은, 을, 으로, 의"의 發達을, 體言語幹의 末母音에서 發達하였음을 考察하였거니와, 이는 그의 發達過程에서 假說해 본 것에 不過하며, 결코 15 C. 國語에 있어서도 "은, 을, 으로, 의"의 "으"를 語幹母音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15C. 以後의 文字表記——15C. 以前 新羅鄕歌 等의 表記에 있어서는 表記文字의 不充分으로 잘 알 수 없는 일이기——에 나타난 것으로는, 알타이 共同祖語에서부터 分派되었다고 생각되는 純粹한 格助詞와 語幹末母音과가 融合하여 하나의 形態를 構成하였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語幹末母音과 元來의 格助詞가 하나의 形態로 굳어진 것은 언제부터냐에 對해서는 잘 알 수 없으나, "-도, -과"와 같은 無聲破裂音을 語頭로 하는 格助詞 앞에서 그 末母音이 脫落한 時期와 거의 一致하지 않을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語幹末母音의 脫落과 함께 言衆들에게는 새로운 語幹意識이 形成되어 "ㄴ, ㄹ, 로, ㅣ"와 같은 格助詞의 添加에서 아직 그 末母音을 維持하고 있는 末母音도 格助詞로 計算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即 앞에서 든 "섭(섶 : 薪)"을 再引用하면, "서브>섭"으로 그 末母音이 脫落한 時代의 言衆들에게는 "섭"의 前次的 語幹이 "서브"이었음을 意識하지 못한 까닭으로 "섭"을 語幹으로 計算하게 되므로, "서븐(서브-ㄴ), 서블(서브-ㄹ)" 等에서, 아직 末母音을 유지하고 있는 形조차 "섭-은, 섭-을" 等으로 計算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섭"이 獨立性을 가진 自立形態(free form)인 만큼, 그 語幹이 "섭"으로서 굳어진 것이요, 따라서 이에 添加한 "-은 -을"이 依存形態(bound form)이기는 하나, 半自立性을 가질 만큼, 그의 意識도 굳어진 것이다. 이 體言의 語幹과 이에 添加하는 格助詞와의 自立性은 相對性의 힘을 가지는 것으로서, 體言語幹이 自立性을 가지는 만큼 格助詞도 半自立性을 言衆들의 言語意識 속에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用言活用에서, 依存形態인 用言語幹과 이에 添加하는 역시 依存形態인 語尾와의 關係와는 多少 다를 것이다. 이와같이 적어도 15C. 國語에서 元來 純粹한 格助詞가 "으" 또는 "ㅇ"母音과 더불어 化石化 하였음은 다음의 例로서도 證明할 수 있을 것이다. 即 "여스(狐), 아수(弟)"와 같은 體言이 絶對格이나 目的格 또는 所有格助詞를 取할 때,

(1) 長生인 不肖ᄒᆞᆯ씨(月釋 1 : 14)　　ᄒᆞᆫ녀ᄀᆞ론 분별 ᄒᆞ시고(釋譜 6 : 4)

(2) 가ᄎᆡᆯ(龍歌 7)　　獨夫受ᄅᆞ(龍歌 11)　　재ᄉᆞᆯ 겻구며(月釋 2 : 71)

(3) 公州ㅣ江南(龍歌 15)　　長子ㅣ怒(月譜 8 : 98)　　쇠머리(牛頭)(月釋 1 : 27)

에서와 같은 "ㄴ, ㄹ, ㅣ"를 取하여 "여ᄉᆞᆫ(여ᄉᆞ-ㄴ), 여ᄉᆞᆯ(여ᄉᆞ-ㄹ), 여ᄉᆡ(여ᄉᆞ-ㅣ)"로 表記 또는 表音되지 않고, "여ᄉᆞ"의 語幹에 "은, 을" 또는 "의"와 같은 "으"母音이 이미 化石化한 格助詞를 取하게 되는데, 이에 語幹末母音의 脫落으로 因하여 "ᄋᆞᆫ(<여ᄉᆞ-은), ᄋᆞᆯ(<여ᄉᆞ-을), ᄋᆞᆡ(<여ᄉᆞ-의)"로 表記된 것이다.

흰 ᄋᆞᆫ 뷔놀오(杜解 25 : 28)

ᄋᆞᆡ갗爲狐皮(訓正終聲解)

위 例에서 "ᄋᆞᆫ"과 같이 表記한 것은 勿論 語幹意識의 問題이거니와, 철저하게 表音的 表記를 한 釋譜詳節[15]에서도 이 "여스, 아수"의 경우만은 "엿이(釋譜 13 : 2), 앗이라(釋譜

[15] 許 雄, 『李朝初期文獻의 表記에 나타난 文法意識』 參照, 「국어국문학 3號」 pp. 6—9

13 : 2)"로 表記한 것으로 보아서, 當時의 言衆들의 實際發話에 있어서도 音聲의 微差를 느꼈을 듯하다.[16] 왜냐하면 이 "엿이"의 實際音聲이 [j<>ə s<>i]였더라면 "즈시(貌이)"와 한가지 表記로 "여시(狐이)"로 表記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필 "엿이"로 表記한 것은 [j<>ə s<>s i]로 發音하여 [s]音이 分明히 前音節에서도 意識되었을 것이다. 이 [s]가 前音節에서의 母音의 脫落으로 因하여 表記者에게 前音節의 末母音으로 意識될 수 있었을 것임은, 用言에서의 "비스다(裝), ᄇᆞ수다(碎)"에 副詞形 "아/어"가 添加하여 "으, ᄋᆞ"語幹末母音이 脫落하였을 때도 한가지일 것이다.

香 ᄇᆞᄅᆞ고 빗어(月釋 10 : 21)

ᄀᆞ장 빗어(月釋 7 : 3),

地獄ᄋᆞᆯ ᄇᆞᆺ아바려(月釋 21 : 181)

心魄ᄋᆞᆯ ᄇᆞᆺ아 ᄇᆞ리ᄂᆞ니라(楞 8 : 81)

그리고 노ᄅᆞ(獐) ᄀᆞᄅᆞ(粉)와 같은 경우도 한가지이니, "ᄋᆞᆫ, ᄋᆞᆯ, ᄋᆞ로, ᄋᆡ"와 같은 格助詞의 添加와 同時에, 末母音 脫落으로 因하여 "ㄹ"은 위 音節의 終聲 [ㅣ]로 났을 것임을 보아서, "ᄋᆞᆫ/은, ᄋᆞᆯ/을, ᄋᆞ로/으로, ᄋᆡ/의"와 같은 格助詞는 이미 化石化된 單一形이었음을 알 수 있다.

놀ᄋᆞᆯ 쏘샤(龍歌 65)

놀ᄋᆡ고기 먹고쟈(속三, 孝 2),

놀리고기(獐肉子(譯上 50),

沉香 ᄃᆞᆯᄋᆞ로(月釋 2 : 29),

栴檀香ㄱ ᄃᆞᆯᄋᆞ로(釋譜 6 : 38),

ᄃᆞᆯᄅᆞᆯ 뒨ᄃᆞ라(太平廣記 1 : 11)

이와 같은 이미 굳어진 格助詞는 "ᄂᆞᆷ(他,) 물(水), 民, 國"과 같은 有終聲으로 끝나는 體言아래서 添加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本小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ᄋᆞ/으" 母音이 元來의 格助詞와 굳어져서, 單一形으로 發達한 格助詞가 開音節로 끝나는 體言下에 添加할 때, 그 사이에 /ㅎ/이 介入하게 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開音節로 끝난 體言을 얼마 만큼 들어 보기로 한다.

一音節에서 (a) 고(鼻), 나(年), 내(川), ᄯᅡ(地), ᄆᆡ(野), ᄋᆞ(上)

(b) 쇼(牛), ᄇᆡ(梨), ᄃᆡ(處)

二音節 以上에서 (a) 드르(野), 그르(株), 나조(夕), 니마(額)

---

[16] 李 崇寧敎授는 이를 다만 語幹意識에 依한 表記로만 보고, 音聲의 微差를 느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指摘하였다. 「國語造語論攷」 p. 251, p. 255.

(b) ᄀᆞ새(狹), 고마(妾), 조히(紙), 거우루(鏡)

위 例示에서 (b)의 경우는 다음 倍加法 關係의 小節에서 論하기로 하거니와, (a)의 경우는 15C. 國語의 曲用에서 모두 /ㅎ/이 介入한다. 위에서 든 全語例의 例文은 省略하고, 다만 "고(鼻), 드르(野)"의 二例만을 들어 보기로 한다.

고ᆞ홀 ᄉᆡ히 ᄒᆞ노라(杜解 16 : 20),

고ᆞ히 내욘 거시라(楞 3 : 24),

고ᆞᄒᆞ로 맏는거슬(釋譜 13 : 39),

먼드ᆞ르ᆞ홀 咫尺만 ᄒᆞᆫ가 ᄉᆞ랑 ᄒᆞ노라(杜解 7 : 23),

드ᆞ르ᆞᄒᆞᆫ 춤 츠는 옷 알핀 휜ᄒᆞ노라(杜解 15 : 29)

이와 같이 "고, 드르"와 같은 語幹母音과, "ᄋᆞᆫ/ᄋᆞᆫ, ᄋᆞᆯ/ᄋᆞᆯ, ᄋᆞ로/으로, ᄋᆡ/의" 等 같은, 이미 單一化한 格助詞의 添加로 因한 形態(語素)와의 連結에 /ㅎ/이 介入한 것이다.[17]

3.4 格助詞의 倍加的 發達

위에서는 "드르(野)"와 같은, 開音節로 끝나는 體言(위 (a)의 語例)에 絶對格 "ᄋᆞᆫ/ᄋᆞᆫ" 目的格 "ᄋᆞᆯ/ᄋᆞᆯ"과 같은 格助詞의 添加에 /ㅎ/이 介入함을 보았거니와, 다음 "거우루(鏡)"와 같은, 開音節로 끝나는 體言(위 (b)의 語例)이 絶對格 또는 目的格을 取할 때, 아래에서와 같이 "ᄂᆞᆫ/ᄂᆞᆫ" 또는 "ᄅᆞᆯ/ᄅᆞᆯ"과 같은 助詞를 取하게 된다.

絶對格 : 두려운 거우루ᄂᆞᆫ : 圓鏡(楞解10 : 1)

ᄆᆡᆺ골 ᄇᆡᆫ디ᄂᆞᆫ(杜解 7 : 14)

目的格 : 잇비 거우루ᄅᆞᆯ ᄃᆞ랫ᄂᆞᆫᄃᆞᄒᆞ니 : 勞懸鏡(杜解 20 : 34),

싸호ᄂᆞᆫ 쇼ᄅᆞᆯ 두소내 자ᄇᆞ시며(龍歌 87)

늘근 겨지븐 죠히ᄅᆞᆯ 그려(杜解 7 : 4)

그리고 역시 開音節로 끝나는 體言에 絶對格 또는 目的格 助詞를 取할때, "ㄴ" 또는 "ㄹ"만이 添加되는 경우가 있다.

絶對格 : 長生ᄋᆞᆫ 不肖ᄒᆞᆯ씨(月印 1 : 41),

ᄒᆞ녀ᄀᆞᄅᆞᆫ 분별ᄒᆞ시며.(釋譜 6 : 3)

절로 가며 절로 오ᄂᆞᆫ(杜解 7 : 3)

目的格 : 獨夫受ㄹ셤기시니(龍歌 11)

하ᄂᆞᆯ히 우ᄅᆞᆯ 뵈시니(龍歌 68)

지ᄉᆞᆯ 겻구며(月釋 2 : 71)

그런데 이 "ㄴ, ㄹ"은 絶對格 또는 目的格의 本來의 形이요, 앞에서 든 "ᄂᆞᆫ/ᄂᆞᆫ, ᄅᆞᆯ/ᄅᆞᆯ"

---

[17] 이 ㅎ音에 對하여는 여러說이 있으나 玄 容駿氏의 濟州島 方言에서의 『ㅎ揷腰音에 對하여』 參照, 「濟州文化 1號」 p. 86.

은 모두 이 "ㄴ, ㄹ"이 倍加的으로 發達한 것이다.[18] 그리고 다음과 같은 例는 同一語例로서 元來의 單純形과 倍加된 二重形을 한가지로 取하기도 한다.

絶對格: 곶결 어즈러운 **던** 힛비치 더듸도다(杜初解 7:14)

묏골 뷘 **더는**(杜初解 7:14)

目的格: 도ᄌᆞ기 겨신**딜** 무러(解龍歌 62)

如來 겨신**더를** 모ᄅᆞ수바이다(歌釋 11:10)

이와 같이 15C. 國語에서 兩形이 다 같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더는, 더를"의 "는, 를"이 어떻게 하여 發達하게 된 것인가, 그 過程을 살펴보면, 元來의 單純한 絶對格 또는 目的格助詞가 添加하여 된 "던, 딜"에 앞에서 考察한 바의 體言末母音의 脫落에 依한 "ᄋᆞ/으"母音과 元來의 格助詞가 結合하여 化石化한 "온, 올"이 다시 添加되어, "더는, 더를"과 같이 發達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倍加的 發達過程에 對하여(絶對格의 경우에서) 이미 梁 柱東敎授는 다음과 같이 說明한 것이 있다.

即「原始 固有語法에선 上揭 二形(ㄴ, 온/은)만으로 足했으나, 例컨대「난」은 完全한 指定形이로되, 그 語形이 어쩐지 短促한 不充分한 感이 있어 다시 助詞를 붙이려는 心理的 衝動이 있으므로(마치 近世語의「내가, 난도」와 같이) 이미「ㄴ」助詞가 添加된 事實을 忘却하고 거듭「ㄴ」을 添加할 새 旣存「ㄴ」과 新添「ㄴ」사이에 調音素가 介入된 것」[19] 이라 하였다. 다만 여기에 한가지 指摘하여 두고자 하는 것은, 原始國語에서 絶對格助詞는 오직 "ㄴ"뿐이며, "온/은"의 "ᄋᆞ/으"母音은 語幹末母音에서 發達한 것으로서, 倍加法의 形成過程에 있어서도 元來의 絶對格 "ㄴ"에, "으"母音이 "ㄴ"과 結合하여 이미 單一化한 "온/은"이 다시 添加한 것이라 생각한다. 또 倍加的 發達을 要하게 된 技能上의 問題에 對하여서는, 梁敎授도 指摘한 바와 같이, 原始語의 單純形만으로는 文法的 意識이 不分明하므로 이 文法技能에 對한 意識을 더욱 明確하게 하기 위하여 發達하게 된 것이다.[20]

IV. 結　　論

以上에서 論한 바를 다시 다음과 같이 要約하여 結論으로 삼는다.

1. 國語格助詞와 알타이諸語와의 比較에 있어서, 國語 造格의 "ᄋᆞ로/으로"와, 이에 對應하는 蒙古語 bar의 r에 있어서, 直接 對應하는 "로"를 除外한 "ᄋᆞ/으"母音, 國語 向格의 "ᄋᆞ로/으로"와 이에 對應하는 蒙古語 ru, 古代 土耳其語에 rü에 있어서, 直接 對應하는 "로"를 除外한 "ᄋᆞ/으"母音, 國語 絶對格의 "온/은"과, 이와 對應關係에 있는 滿洲語에서 主語를 強調하는 inu, anu에서의 nu와 直接 對應하는 "ㄴ(ᄂᆞ/느)"을 除外한 "ᄋᆞ/으"母音, 그리고 國語 所有格助詞 "ᄋᆡ/의"와, 이와 對應關係에 있는 滿洲語에서의 所有格助詞 i에

[18] 李 崇寧,「古語의 音韻과 文法」p. 56, p. 60.

[19] 梁 柱東,「古歌硏究」p. 248.

[20] 許　雄,「龍飛御天歌」p. 18 參照.

있어서 "ㅣ"를 除外한 "ㅇ/으"母音은 모두 同一한 母音으로서, 이는 元來 原始國語에 있어서 體言의 語幹末母音에서 發達한 것이다.

2. 이러한 "ㅇ/으"末母音을 가진 語幹에, 알타이諸語와 對應하는, 알타이諸語와의 同祖語에서 分派되었다고 생각되는 순수한 格助詞, 즉 絶對格助詞 "ㄴ", 目的格助詞 "ㄹ", 造格助詞, 所有格 또는 處格助詞 "ㅣ" 등이 添加하매, 이러한 格詞가 "ㅇ/으" 末母音과 融合하여 하나로 굳어져서 "ㅇ/은, ㅇ/을, ㅇ로/으로, ㅢ/의"와 같이 된 것이다.

3. 이와 같이 體言의 末母音 "ㅇ/으"가 元來의 순수한 格助詞와 굳어져서 하나의 格助詞처럼 認定을 받게 된 까닭은, "서브-과, 서브-도"에서와 같이, 無聲破裂音을 頭音으로 하는 格助詞가 添加하여 末母音이 脫落한 結果, 言衆들은 마치 "섭(<서브)"을 語幹처럼 誤認하게 되어, 이에 類推하여 "서브-ㄴ, 서브-ㄹ, 서브-로, 서브-ㅣ"에 있어서도, "섭-은, 섭-을, 섭-으로, 섭-의"로 認定하게 되어, "은, 을, 으로, 의"를 하나의 單一化한 格助詞로 計算하게 된 것이다.

4. 이와 같이, 이미 末母音이 脫落한 語形에 步調를 맞추려는 類推的 心理에 依하여, 體言의 末母音이 脫落하지 않는 "ㅇ/으", 그에 添加하는 순수한 格助詞와 함께 格助詞의 一部로 認定하게 됨은, 用言活用에서 그 語幹末母音 "ㅇ/으"를 마치 그에 添加하는 순수한 語尾와 함께 語尾의 一部로(所謂 調聲母音으로) 보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5. 語幹末母音 "ㅇ/으"가 이에 添加한 元來의 순수한 格助詞와 굳어져서 化石化한 "ㅇ/은, ㅇ/을, ㅇ로/으로, ㅢ/의" 등의 格助詞는

ㄱ) "남(他), 믈(水), 民"과 같은 有終聲의 體言에 添加하기도 하고,

ㄴ) "고(鼻), 드르(野), 나조(夕)"와 같은 末母音을 가지는 體言에 添加하매 /ㅎ/이 介入하기도 한다.

6. 그리고 "더(處), 거우루(鏡)"와 같은 末母音을 가지는 體言에, 特히 絶對格, 目的格과 같은 格助詞가 添加할 때에, 처음에는 單純形인 "ㄴ, ㄹ"만이 添加되다가, 後代에 내려갈수록 文法技能의 強化 心理에 依하여, 이에 다시 "ㅇ/은, ㅇ/을"을 添加하게 되어, "는/는, 를/를"과 같은 倍加形이 發達하게 된 것이다. (1966. 12. 27)

(釜山 工專)